# 2016년07월06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② | ① | ③ | ⑤ | ⑤ | ④ | ③ | ① | ⑤ | ②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 ① | ① | ④ | ③ | ⑤ | ⑤ | ④ | ② | ③ | |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느 옛 성현은 매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❷ 반성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③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존재이다.

④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⑤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 귀의(歸依)하는 존재이다.

*2.*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ㄱ)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 활동한다. 이 목적을 결정한 최초의 존재가 바로 신이다.<br>○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 (나) | 갑: 어떻게 하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나요?<br>을: [ ㉠ ] |

❶ 최고선인 신과 하나됨을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따름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③ 도덕적 덕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얻어 도달할 수 있습니다.

⑤ 종교적인 덕을 실천함으로써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동양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살(菩薩)이 깊은 지혜를 행할 때 오온(五蘊)이 공(空)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色)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受想行識)도 그러하니라.

<보 기>

ㄱ. 선정을 통해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ㄴ. 존재의 무상함을 깨달아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ㄷ. 연기를 깨달아 나와 남을 하나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ㄹ.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독립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❸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4.* 다음 동양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삶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至人]은 신령하다. 큰 못을 태워 버릴지언정 그를 뜨겁게 할 수는 없으며 사나운 천둥이 산을 쪼개고 바람이 바다를 뒤집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앉아 이 세상 밖에서 노닐고 삶과 죽음이 그를 바꿔놓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해(利害) 따위가 그를 어쩌겠는가?

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예법을 실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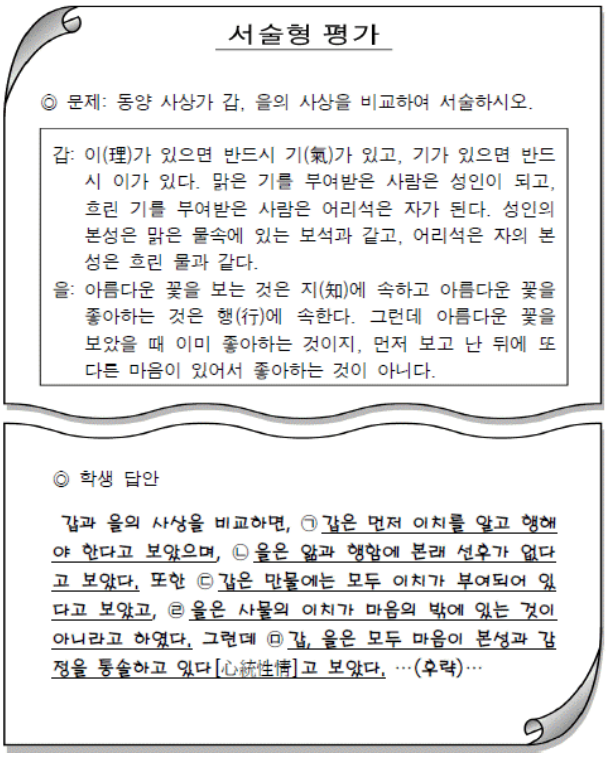
② 탐욕을 버리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③ 자연 만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에 주목하라.

④ 선악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갖추고 타인을 교화하라.

❺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르라.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사상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이(理)가 있으면 반드시 기(氣)가 있고, 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가 있다.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고, 흐린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인의 본성은 맑은 물속에 있는 보석과 같고, 어리석은 자의 본성은 흐린 물과 같다.
을: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은 지(知)에 속하고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는 것은 행(行)에 속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이미 좋아하는 것이지, 먼저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사상을 비교하면, ㉠ 갑은 먼저 이치를 알고 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을은 앎과 행함에 본래 선후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 갑은 만물에는 모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고, ㉣ 을은 사물의 이치가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 갑, 을은 모두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솔하고 있다[心統性情]고 보았다. …(후략)…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❺ (ㅁ)

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나는 자연 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 만일 당신이 훌륭한 제화공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구두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제작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의 선택 그리고 사용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보 기>

ㄱ. 도덕적 실천을 위해 이성적 사유가 요구된다.
ㄴ. 악행의 원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ㄹ. 행복한 삶은 덕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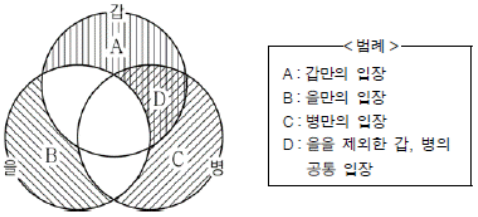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❹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검소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런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인간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병: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상한 쾌락을 선택할 것이다.

(나)




<보 기>

ㄱ. A: 행복 실현을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ㄴ. B: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계산할 수 있다.
ㄷ. C: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ㄹ. D: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❸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다음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하늘이 명령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

❶ 예의(禮義)로써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② 존비친소의 구분 없이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③ 집착에서 벗어나 중생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④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⑤ 외물(外物)에 의지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산출하게 될 것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아니라 의무에서,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의해 정해진다.
> 을: 이성은 참과 거짓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관조적 능력이지 활동적인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전적으로 비활동적인 능력이므로,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성은 정념을 이끄는 마부 노릇을 할 수 없다.

<보 기>

ㄱ. 갑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본다.
ㄴ. 을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사회적 승인 여부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❺ ㄴ, ㄷ, ㄹ

**10.** 표는 고대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번호 | 질문 | 응답 | |
|---|---|---|---|
| | | 예 | 아니요 |
| (1) |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가? | V | |
| (2) | (가) | | V |
| (3) |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질료로 구성되어 있는가? | V | |
| (4) | 중용의 덕은 옳은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형성되는가? | V | |

① 사물의 본질은 바로 그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인가?
❷ 인간의 모든 행위와 감정에 중용의 상태가 존재하는가?
③ 자아실현은 국가에서의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 가능한가?
④ 각 개체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가?
⑤ 품성적 덕의 형성을 위해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가?

**11.**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국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위적 질서로 바꾸려 들면 애초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비효율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국가는 시민이 기본적인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국민 소비가 불충분하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은 직원을 줄여 실업이 늘고 국민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 ]고 생각한다.

❶ 복지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함을 간과한다
②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③ 생산의 효율성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④ 국가가 공공선을 위해 시장 규제를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12.**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이(理)는 무형(無形)이고 기(氣)는 유형(有形)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근거가 없다.
> 을: 이(理)에 동정(動靜)이 있어서 기(氣)에 동정이 있다. 만약 이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떻게 동정하겠는가? 이가 움직이면 기가 따르며, 기가 움직이면 이가 그 기를 올라타서 드러나는 것이다.

❶ 갑은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② 갑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발해 드러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각기 다르지 않다고 본다.
④ 을은 사단은 순선한 성이고 칠정은 선악이 혼재한 정으로 본다.
⑤ 갑, 을은 그릇된 기질을 고쳐 사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1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 을: 인간은 악하기보다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롭지만, 타인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는 자들에 의해 종종 전쟁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① 갑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이타적이라고 본다.

② 갑은 사회계약 당사자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본다.

③ 을은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고 본다.

❹ 을은 국가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일반의지를 실현하고자 국가를 세웠다고 본다.

**14.**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모든 법은 오직 일심(一心)이 있을 뿐 일심 이외에 다시 어떠한 법도 없다. 다만 무명(無明)이 자신의 마음을 미혹시켜 모든 물결을 일으켜 육도(六道)에 유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육도의 물결이 일어나도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실로 일심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육도가 전개되는 것이다.
> 을: 얼어 있는 연못이 그대로 다 물인 줄은 알지만 햇볕의 힘을 빌려서 녹여야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곧 부처인 줄 깨달아도 법력(法力)을 길러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만 물을 대고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망상이 다해서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해야만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

① 갑은 모든 종파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통합을 추구하였다.

② 갑은 진(眞)과 속(俗)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❸ 을은 지혜(智慧)는 선정(禪定)을 떠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④ 을은 초월자에 의지해 불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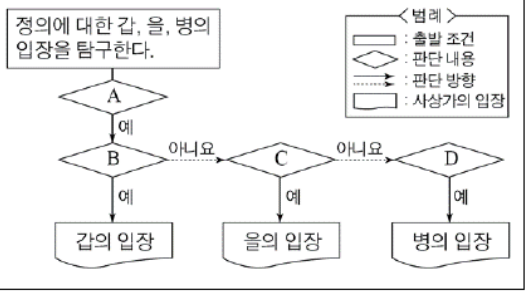
⑤ 갑, 을은 모두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국가는 최소 국가이다. 그 이상의 포괄적인 국가는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 을: 정의의 원칙은 특정한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다. 그 상황의 본질적 특성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소질, 능력을 모른다는 점이다.
> 병: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런 차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

(나)




① A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는가?

② B : 국가에 의해 사회적·자연적 우연은 조정되어야 하는가?

③ C :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종의 강요된 노동인가?

④ C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 전통을 중시하는가?

❺ D : 복합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16.**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성인(聖人)이 인위를 쌓아 예의를 이룬 것은 도공이 진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든 것과 같다. 폭군과 도둑을 천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성만 좇았기 때문이다.
> 을: 계속 채우려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낫고,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갈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功)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① 갑은 예를 배워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갑은 타고난 이기적 욕구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였다.

③ 을은 인위적인 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④ 을은 백성을 무지 상태에 머물게 하는 정치를 추구하였다.

❺ 갑, 을은 본성을 확충하면 누구나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17.** 갑, 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미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 을: 우리는 단순히 도덕 규칙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성격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도덕 규칙들을 만든다 해도 규칙들만으로는 훌륭한 도덕적 성품의 계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① 도덕성의 핵심을 감정보다 이성에서 찾아야 하는가?
② 타인과의 연대보다 보편적인 원칙의 적용이 중요한가?
③ 사회적 쾌락의 극대화를 삶의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가?
❹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하는가?
⑤ 도덕성 발달을 위해 동정심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18.**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하늘이 내려준 성(性)은 선(善)과 의(義)를 좋아함으로써 영명(靈明)이 스스로를 살찌우도록 되어 있다. 한 가지 일에 마주칠 적마다 그 선함과 악함이 바로 앞에 놓여 있으니, 성이 향하고자 하는 쪽을 한결같이 따른다면 아무런 잘못이나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다.

<보 기>

ㄱ. 사덕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갖게 되는 것으로 본다.
ㄴ. 기질을 교정하여 천리인 사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
ㄹ.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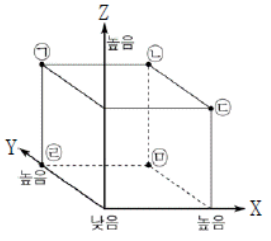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윤리적 실존을 통해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❸ 을은 죽음을 직시해 개별자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한계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이성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이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기(器)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를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 (나) 선천(先天)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여 모든 인간의 일이 도의에 어긋나 원한이 맺히고 쌓였다. 그러므로 이제 천지의 도수(度數)를 고쳐 만고의 원한을 끝내고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무위지화(無爲之化)로 백성을 올바른 닦음으로 인도한다.




- X: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통합하려는 정도
- Y: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정도
- Z: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강조하는 정도

① (ㄱ)
❷ (ㄴ)
③ (ㄷ)
④ (ㄹ)
⑤ (ㅁ)